

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		
담당 부서	항공정책실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 신익승 (044-201-4211)
보도일시	2022년 12월 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7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김포-하네다 노선, 주 84회까지 순차 증편

- 한·일 항공협력 실무회의(12.7기서 합의... 코로나-19 이전 수준 회복)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향후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 확대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 이후,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한-일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,
- 최근 한-일 국제선 여객수요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, 한·일 국제항공 협력 실무회의(12.7일, 도쿄)에서 김포-하네다 노선을 주 84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하였다.

<한-일 국제선 운항실적>

구분	'20.1월	'22.9월	'22.10월	'22.11월		
				1주(11.1~)	2주(11.7~)	3주(11.14~)
운항횟수 (20.1월 대비 회복률)	주 845회 (100%)	주 156회 (18.5%)	주 209회 (24.7%)	주 494회 (58.5%)	주 516회 (61.1%)	주 550회 (65.1%)

- 이번 증편운항 결정으로, '20.3월 이후 중단되었던 김포-하네다 노선은 2차례의 증편을 거쳐 코로나-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.

- 김포-하네다 노선의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4개 항공사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,
 -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-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* 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 - * 대한항공(www.koreanair.com), 아시아나(www.flyasiana.com), 일본항공(JAL, www.jal.co.jp), 전일본공수(ANA, www.ana.co.jp)

-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제선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, '22년 동계기간 ('22.10.30 ~ '23.3.25) 중에도 수시 증편을 추진하고,
 -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중국 노선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선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